

## 공약사항 관리카드

<b>관리분야</b>	<b>일반행정</b>	<b>관리번호</b>	<b>1-1</b>
-------------	-------------	-------------	------------

<b>공 약 명</b>	<b>시 전환 추진</b>										
<b>사업구분</b>	<b>성격별</b>		<b>기간별(임기내)</b>			<b>사업비별</b>		<b>재원별</b>			<b>소요사업비</b>
	신규	계속	완료	착수	기반조성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기타	
		○	○				○				
<b>사업주체</b>	국가	도	자체	민간	<b>사업기간</b>		<b>2018~2022</b>			팀 장 류기찬(☎1885) 담당자 신동훈(☎1576)	
			○								
<b>주관부서</b>	<b>행정지원과</b>				<b>관련부처</b>	<b>행정안전부</b>					

###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시 전환
- 사업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전환 추진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

### □ 연차별 추진계획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 후
추진계획	- 시 전환 기본 계획 수립 - 업무협약 체결 (전남 무안)	- 조례제정 - 시 전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	- 시 전환 지속 홍보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시 전환 공동협의체 구성(무안)	- 시 전환 지속 홍보 -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 발의시 전략적 대응 - 시 전환 입법지원	- 시 전환 행정절차 추진(동사무소 설치 등)	

### □ 그동안 추진실적

- 2017. 7.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행정안전부, 국회의원)
- 2018. 10. :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8. 11. :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  
 (전남 무안군),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전남 무안군) 건의(행정안전부)
- 2018. 12. :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 건의(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안전부)
- 2019. 1. :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국회의원, 행정안전부)
  - 무안군과 공동으로 양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서 제출
- 2019. 2. :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국회의원, 행정안전부)

- ※ 무안군과 공동으로 양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 제출
- 2019. 4. : 시 전환 추진위원회 구성(30명) / 위원장 : 군수
  - 총 4개 분과 구성 : 행정, 대외협력, 지역발전, 교육
- 2019. 6. : 분과위원장과 1차 간담회 개최, 시 전환 활동지원 보조금 지급 (7백만원), 시 전환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9. 8. : 분과위원장과 2차 간담회 개최
- 2019. 9. : 시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2019. 11. : 국회 시 전환 간담회(홍성군-무안군-홍문표-서삼석)
- 2019. 11. : 홍성군 시 전환 전문가 초청 특강(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2. :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활동지원 보조금 지급(10백만원)
- 2020. 3. : 홍성군 시 전환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착수
- 2020. 6. : 시 전환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2020. 6.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충남도,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 2020. 6.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국회 방문(홍문표, 서삼석 의원)
- 2020. 9.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국회 방문(홍문표 의원)
- 2020. 10. : 시 전환에 따른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 및 대책 보고회 개최
- 2020. 11. :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홍문표, 서삼석의원)
- 2021. 1.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2021. 2. : 충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2021. 2. :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 2021. 3. :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방문 입법 건의

## □ 문제점 및 대책

- 조세부담증대 및 농촌지역 특혜 감소로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반대 가능성 있음
- ⇒ 시 전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실시

## □ 향후 추진계획

- 제1단계 추진(시 전환 기반 조성) - 2019년(완료)
  - 전문가 초청 역량강화 교육 : 공무원, 시 전환 추진위원 활동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 제2단계 추진(군민 공감대 형성) - 2021년
  - 「지방자치법」 제7조에 정한 시 전환 요건 충족 지속 추진
  - 시 전환의 필요성 및 주민 부담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시 전환 범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 제3단계 추진 계획(행정 절차 추진) - 2022년
  - 시 전환에 따른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한 시 전환 추진
  - 시 전환 추진일정 홍보 및 동 사무소 신축 준비
  - 市 전환 時 市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 시 전환 대비 지역주민 인식조사 실시

□ 증빙자료 첨부

**충청투데이** 2020년 03월 24일 (화) 12면 지역

### 홍성군, 시 승격 마스터플랜 수립 나서

7월께 최종 연구용역 결과 발표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지 1년만이다.

그동안 군은 무안군과 공동협약, 청와대·국회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외협력에 주력해왔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13.9 X 7.4 cm

**충청신문** 2020년 03월 24일 (화) 13면 지역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홍성군에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 가운데 23일 본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지 1년 만에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성/김원종 기자 (이승=충청투데이)  
13.9 X 11.8 cm

**대전투데이** 2020년 03월 24일 (화) 09면 경제

##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홍성군, 로드맵 마련 ·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 나선다는 방침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지 1년 만에

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외협력에 주력해왔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성경대 임정빈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는 "도형소재지 군은 홍성군과 무안군밖에 없다"며 "현재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와 타 시군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홍성군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도형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승격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충남혁신도시 지원과 방앗간 충남경제활미작 도형 수부도시에 걸맞은 추진전략 도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 승격을 위해 군민의 열원을

검증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정주이권 개선을 위한 협력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 각종 홍보활동을 펼쳐 시 승격을 위한 추진정책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성=김원종기자  
25.7 X 10.6 cm

# 홍성, 전남 무안군과 손잡고 '시 승격' 추진

## 공동협력체 구성해 협력방안 논의 "도농복합시 기준인구 10만명으로"

홍성·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이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용복 부군수는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 공동협력체'를 구성, 지방자치법 개정의 변화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시 승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사항은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곳은 시로 한다'라는 규정 신설 이외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도농복합시 인구기준인 15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지난 13일 이용복 홍성부군수가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시 승격'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성=홍성신문

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곳 이상의 지역연구가 5만 이상으로 근친제 인구가 15만 이상일 때 시 승격이 가능하다.

홍성지역은 2020년 사해선 북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은 지난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지어 국회의원, 충남도에 건의했다.  
앞을 앞두고 시 승격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성=배승민 기자 22.0 X 11.0

# 홍성군, 시 승격위한 체제 마련 '쟁걸음'

이용복 부군수 무안 방문 "시 승격 공동협력체 발족" 협행 15만 이상 인구요건 10만 이상으로 완화 추진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정 범위적 체제 구축 마련에 돌입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용복 부군수는 지난 13일 전남 무안군을 방문,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상호 있게 논의 했다. 군 차원에서 시 승격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인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가 1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으로 구성된 시 승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군의 경우 오는 2020년 사해선 북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기대되고, 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예상된다. 군은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동시, 도청소재지 근 생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에 건의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복 부군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군과 비슷한 여건인 전남 무안군을 찾아 공동 대응방안에 협력방안 마련 것으로 나타났다. 시 승격을 위한 주요 협의사항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곳은 시로 한다는 규정 신설 외에,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되며 '도 · 농 복합 시 인구기준인 15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 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홍성군과 무안군뿐 아니라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도 해당되므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복 홍성 부군수와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도 · 농 복합 시 인구기준인 15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 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홍성군과 무안군뿐 아니라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도 해당되므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배승민 기자 22.0 X 11.0

# 홍성군, 시 승격 추진 재시동

홍성군이 최근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 있게 논의했다.

군 차원에서 시 승격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으로 구성된 시 승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홍성군의 경우 2020년 사해선 북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에서는 인구증가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도청소재지 근 생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용복 부군수는 법 개정의 필요성 파악하기 위해 비슷한 여건인 전남 무안군을 찾아 공동 대응방안 마련 협의 있게 논의했다. 시 승격을 위해 주요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법 개



이용복 홍성 부군수가 지난 13일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을 위한 공동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복 부군수 전남 무안군 방문...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대응 논의

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곳은 시로 한다'라는 규정 신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도농복합시 인구 기준인 15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 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홍성군과 무안군뿐 아니라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도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배승민 기자 22.0 X 11.0



힘찬 도약 희망 홍성

## 홍 성 군



수신 무안군수(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시 승격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실시 협조 요청

1. 평소 홍성군정 업무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18년 8월 귀 기관을 방문하여 도청소재지 군(홍성, 무안)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
3. 양 군의 대표자(군수님, 군의장님, 국회의원님)와 함께 시 승격 원활한 추진 방향 모색 등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희망시기	장 소	논의 안건	참석가능여부 (시지체장,의장,국회의원)	비고
2018.11.26. ~12. 07. (기간 총 1일)		- 협의체 구성 - 공동건의문 작성 등		

끝.

## 홍 성 군



주무관 강은미 행정팀장 최주식 행정지원과장 전철 2018. 11. 6. 정동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204 (2018. 11. 6.) 접수

우 3222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로길 27 / http://hongseong.go.kr

전화번호 041-630-1304 팩스번호 041-630-1698 / keunmi26@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한 천년, 함께할 천년" 2018 홍주탄생 천년의 해

## 충청투데이

2020년 03월 24일 (화)  
12면 지역

# 홍성군, 시 승격 마스터플랜 수립 나서

### 7월까지 최종 연구용역 결과 발표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지 1년만이다.

그동안 군은 무안군과 공동협약, 청와대·국회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외협박에 주력해왔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13.9 X 7.4 cm

## 충청신문

2020년 03월 24일 (화)  
13면 지역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지 1년만에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성/김영환 기자 010-800-8000

19.0 X 11.6 cm

## 대전투데이

2020년 03월 24일 (화)  
09면 경제

#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홍성군, 로드맵 마련 ·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 나선다는 방침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지 1년만이다.

그동안 홍성군은 무안군과 공동협약, 청와대 · 국회 · 행정부 등을 방문해 지

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외협박에 주력해왔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성광대 임정빈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 이사)는 "도원소재지 군은 홍성군과 무안군밖에 없다"며 "현재 지방자치법의 가능성 한계와 다 시군 승격시제를 점검해 분석해 홍성군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도원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승격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발맞춰 충남경제활미광 도청 수부도시에 걸맞은 추진전략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 승격을 위해 군민의 열원을

검증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정주이건 개선을 위한 행정력에 집중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군은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정책포럼의 개최 등 각종 홍보활동을 펼쳐 시 승격을 위한 추진정책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성=김영환기자

25.7 X 10.6 cm

# '시 승격' 향한 큰 그림

## 홍성군,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군은 무안군과 공동협약, 청와대·국회·행안부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외협력에 주력해왔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성결대 임정빈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는 "도청소재지 군은 홍성군과 무안군밖에 없다"며 "현재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와 타 시군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홍성군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 추

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도청소재지의 위상정립과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승격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발맞춰 충남경계를 이괄 도청 수부도시에 걸맞은 추진전략 도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 승격을 위해 군민의 염원을 결집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력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실문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 각종 홍보활동을 펼쳐 시 승격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양/김보현 기자**

12.4 X 18.6 cm

# 서울일보

## 홍성, '시 승격' 구체적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홍성군은 무안군과 공동협약, 청와대·국회·행안부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외협력에 주력해왔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성결대 임정빈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는 "도청소재지 군은 홍성군과 무안군밖에 없다"며 "현재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와 타 시군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홍성군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승격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발맞춰 충남경계를 이괄 도청 수부도시에 걸맞은 추진전략 도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 승격을 위해 군민의 염원을 결집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력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정빈 기자**

12.0 X 13.5 cm

# 동양일보

## 홍성군 "도청 소재지로서 '시 승격' 돼야"

### 전략수립연구용역 보고회... "논리적 근거·단계적 추진전략 마련"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 '홍성군시승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홍성군은 무안군과 공동협약, 청와대·국회·행안부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외협력에 주력해왔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성결대 임정빈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는 "도청소재지 군은 홍성군과 무안군밖에 없다"며 "현재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와 타 시군 승격 사례를 꼼꼼

히 분석해 홍성군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승격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발맞춰 충남경계를 이괄 도청 수부도시에 걸맞은 추진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승격을 위해 군민의 염원을 결집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력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성 현성남 기자**

12.0 X 13.5 cm

# 중부매일

## 홍성군 '시 승격' 마스터플랜 수립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시 승격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현구 / 홍성**

7.1 X 9.7 cm

# 충남도의회 “예산·홍성군, 시로 전환하라”



## 시(市) 전환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

은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인 예산·홍성군(郡)을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을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면 보유, 또는 △인구 2만 명을 넘는 읍·면이 2개 이상이고 그 합이 5만 명 이상인 군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만큼 시 설치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방 의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 남야신도시는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25.8 X 14.2 cm

## 무안·홍성·예산 '시 승격' 속도낸다

충남도의회 2월 8일 1차 본회의에서 무안·홍성·예산 시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도청 소재지인 郡은 시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새로 시도선 설정세 거점과  
위상에 맞는 행정서비스 강화’

전날 무안군, 홍성·홍성·예산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市) 승격에 동의 나섰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전라남도청(남야신도시)과 충청남도청(부여신도시)을 통해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만 명 이상인 무안군 남야신도시에 대한 시 승격에 동의한 것이다. 무·지·예 모두 시(市) 승격의 실효성을 지난 연말 시로 승격해 지역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4일 무안·홍성·예산군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약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최근 무안군수가 학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표(예산·홍성), 서상석(무안·무안신도) 의원은 지난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시 행정 주간에 대한 소재지가 있는 시(市)를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이 핵심 내용이다.

향후 지방자치법은 시 승격 조건으로 5만 명 이상의 인구는,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거나, 인구 2만 명 이상의 2개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라고 한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조건을 충족한다. 무안군의 지난해 기준 인구는 8만7590명이다. 2014000여 명이 넘는 인구 예행면 교통주요의 인구를 대체로 15만 명을 넘기게 되었다. 차등 인구 증가에 따른 시 승격은 시(市)로 승격한다. 홍성군과 예산군도 지난해 기준 인구 수가 각각 9만2975명, 7만7595명이다.

### 충남도청 들어선 무안·남야신도시

면적	무안신도청(무안) 10000㎡
연면적	9000㎡(200㎡)
개방일부	2019.12.15
지역	충남계룡시(계룡신도)
계약기간	2019.12.15

### 청와대 건의건서

1. 시(市)로 전환할 수 있는 郡은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2. 도청 소재지인 郡은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3. 도청 소재지인 郡은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4. 도청 소재지인 郡은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5. 도청 소재지인 郡은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6. 도청 소재지인 郡은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7. 도청 소재지인 郡은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시(市)로 전환할 수 있는 郡은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김석환 홍성군수, 지역현안 해결 발로 뛰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협조 요청  
혁신도시 지정 따른 시 전환 문제  
한국 섬 진흥원 유치 당위성 피력



김석환 홍성군수(오른쪽)이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 하는 모습. 8일 재

홍성군이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발맞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행동에 나섰다.

군은 10일 김석환 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를 방문해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홍성군의 위상 정립을 위한 시 전환 문제와 한국 섬 진흥원 신설에 따른 유치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는 시 전환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 소속 의원 4명을 만나 지난해 11월에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임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 2020년 도새발목집행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한국 섬 진흥원의 경우 홍성군이 수도권 전철 연장과 서해신 복선전철 등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인 점과 세종특별시와의 교통망과 충남혁신도시와의 행정 연계성을 도대로 홍성군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홍성군의 시 전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행정절차도 함께 준비중이다.

아울러 섬과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를 맡게 될 한국 섬 진흥원의 경우 섬을 보유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될 예정이어서 해당산업의 메카 홍성을 전망한 충청남도도 함께 혁신도시 지정과 맞물려 해당산업 신 중심지로 홍성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국회 행안위에 도청 소재지군의 시 전환에 대한 당위성과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이렇다 할 공공기관 유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시 전환과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wik@kocna.or.kr](mailto:wik@kocna.or.kr)